

2023. 6. 21.(수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6월 21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

건축기획과장	박순규	2133-7090
건축문화시설운영팀장	정여란	2133-7627
담당자	김재섭	2133-7718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3매

서울도시건축전시관 연작전 '건축과 가구적 모색' 6.22(목) 개막

- 연작전시 <건축가의 관점들> 두 번째 '건축과 가구적 모색' 8.13(일)까지 열려
- 건축과 공간을 확장하는 매개체이자 건축의 구성요소로서 '가구'의 역할 모색
- 시 "건축적 관점에서 '가구' 바라보는 기회, 연말까지 이어질 전시에 관심 바라"

- 서울시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(서울 중구 세종대로 119)에서 열리고 있는 <건축가의 관점들> 연작전시 중 두 번째 '건축과 가구적 모색'을 6.22(목)~8.13(일) 연다고 밝혔다.
 - <건축가의 관점들>은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진행 중인 연작전시로 올해 총 세 차례의 전시가 연이어 열린다.
 - 올해 4~6월 '건축과 예술'을 주제로 첫 번째 전시 <건축가의 관점들: 건축과 예술적 기질>이 진행되었으며, 마지막 전시는 '건축과 환경'을 주제로 11월 중 개막할 예정이다.
- 두 번째 전시인 <건축가의 관점들: 건축과 가구적 모색>에서는 '가구'를 건축으로 인해 만들어진 공간을 밀도 있게 연결해 주는 매개체로서 주목, 건축가에게 영감을 주는 원천이자 건축의 구성요소로 기능하는 '가구'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.

- 이번 전시에는 박희찬, 장영철, 정수진이 작가로 참여하여 건축가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가구의 역할과 실제로 그들이 고안한 가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하여 관람객에게 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.
 - 박희찬은 '가구 만들기'를 건축과 별개의 작업이 아닌 건축의 일환으로 여기고 완성된 가구뿐만 아니라 제작에 사용된 재료와 과정을 소개하며,
 - 장영철은 가구로 조성한 1인 주거공간 <빼빼 일인주거>라는 작품을 통해 가구를 활용한 가변적 생활공간을 선보임으로써 공간을 경험하는 또 다른 흥미 요소를 제공할 계획이다.
 - 정수진은 공간과 가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공간에 일체화된 가구란 무엇인가를 보여줄 예정이다.

- 전시는 오는 8.13(일)까지 열리며, 화~일요일 10:00~18:00 (입장 마감 17:30, 월요일 휴관)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. 자세한 사항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누리집(검색창에 '서울도시건축전시관') 또는 전화(☎02-763-8050)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-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"우리 생활 속에 늘 마주하는 가구가 아닌 건축·건축가의 관점에서 가구가 갖는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"이라며 "'건축과 환경' 주제로 열릴 마지막 전시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"고 말했다.

〈첨부1〉

전시 개요 및 관련 이미지

■ 전시개요

- 전 시 명 : 건축가의 관점들: 건축과 가구적 모색
(Perspectives of Architects: Craftmanship)
- 전시기간 : 2023. 6. 22.(목) ~ 8. 13.(일)
- 전시장소 :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갤러리2



전시 포스터



장영철



박희찬



정수진